

LG화학, ABS 생산능력 세계3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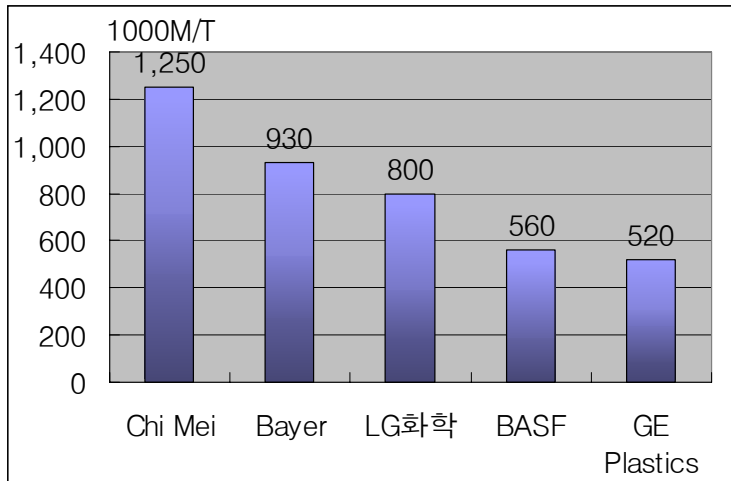
2004년까지 중국 생산능력 20만톤 증설 ... Chi Mei 및 Bayer 추격

LG화학이 한국 및 중국에 플랜트를 증설해 ABS 생산능력 80만톤을 갖추고 Chi Mei 및 Bayer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 생산기업이 됐다.

LG화학은 2002년 12월 중국 Ningbo 소재 LG Yongxing Chemical의 ABS 플랜트를 증설함에 따라 LG Yongxing 플랜트의 생산능력이 30만톤으로 100% 증가해 중국에서 가장 큰 ABS 플랜트로 부상했다.

LG화학은 중국 프로젝트를 2003년 중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수요가 급증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증설을 서둘렀다. LG Yongxing은 LG 및 Yongxing Chemical이 75대 25로 출자한 합작기업이다.

ABS 생산능력 비교



자료) CMAI 및 LG화학

한편, LG화학은 중국의 ABS 시장이 2005년까지 82%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중국의 ABS 수요는 2001년 185만톤으로 143만톤이 수입됐는데 중국의 ABS 수입비중은 세계의 약 50%이다.

LG화학은 중국의 ABS 생산능력을 2004년까지 20만톤 확대하기 위해 Ningbo 또는 Styrene이 공급 가능한 Maoming에 생산설비를 신설할 계획이다.

중국의 ABS 생산능력을 추가할 것으로 보이는 화학기업으로는 Chi Mei, 신호유화, Formosa Chemicals & Fibre, Taita Chemical 및 Jilin Chemical Industrial 등이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7/08>